

'농디', 지방소멸위기 극복 계기로

〈농촌유휴시설디지털 통합플랫폼〉

전북도, 구축 사업 최종보고회... 내년 1월 2일 정식 오픈, 2개월여 안정화 기간 동안 수요자 의견 반영

전북도는 26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농촌유휴시설디지털 통합플랫폼' 약칭 '농디' 구축 사업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최종보고회에는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 이원택 국회의원, 정운천 국회의원, 최형열·서난이·오은미 전북도의회 의원, 농식품부 정아름과장, 한국국토정보공사 최규명 부사장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농디'는 농촌지역 인구감소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농촌유휴시설의 활용을 위해 전국 최초 전북도와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가 협약을 통해 구축한 디지털트윈 기술을 접목시킨 '농촌유휴시설 통합플랫폼'이다.

'농디'의 핵심 기능은 농촌유휴시설의 내·외부 공간을 시각적 매체를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 여건, 및 시·군 행정정보 등을 제공해 수요자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창업 등 관심 사항에 대한 쉽고 빠른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최종보고회는 주요인사 인사말, 홍보영상 상영, 농디사업 소개 및 추진상황보고, 농디 핵심기능 설명 및 시연, 플랫폼 고도화제안,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최규명 부사장은 "농디는 전북도와 혁신도시 이전기관 간 협업으로 이뤄낸 좋은 사례"라며,



26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농촌유휴시설디지털 통합플랫폼' 약칭 '농디' 구축 사업 최종보고회가 열린 가운데,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 정운천 국회의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최규명 부사장 등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촌디지털통합플랫폼 '농디'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농촌유휴시설디지털통합플랫폼 활성화를

통해 지방소멸위기와 농생명산업 수도의 완성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농촌문제 해결을 위해 '농디'의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농디'는 내년 1월 2일 정식 오픈되며 약 2개월 정도의 안정화 기간 동안 플랫폼을 이용하는 수요자들의 의견 등을 반영해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ESG경영 선도기관' 인정

농식품유통공사, 한국 ESG대상 공공부문 '대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6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단법인 한국ESG학회(회장 고문현)'가 2023년 처음으로 시행한 '2023 한국 ESG대



상'에서 공공기관 부문 최고상인 '대상'을 최초로 수상하며 ESG경영 선도기관으로 인정받았다.

'한국 ESG대상'은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ESG경영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널리 확산을 위해 시행하는 포상 제도로 12개 부문별로 ESG경영 체계와 성과를 평가해 수상 기관을 선정했다.

공사는 김춘진 사장 취임 직후인 2021년 4월에 협력기업 169개 사와 함께 ESG경영을 선포하고 공공기관 중 선도적으로 ESG경영 체계를

확립했다. 먹거리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생활 캠페인 확산, 글로벌 '김치의 날' 제정, 공공급식통합플랫폼 출범으로 대국민 공공급식 개선, 월

동채소를 저탄소 작물인 우리 밀로 작물전환,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최초 설립 등 적극적인 ESG경영 활동으로 다양한 성과를 창출했다. 특히 본 대회에 주요 성과로 제출한 공공급식통합플랫폼의 경우 지역·친환경 농산물 소비 기반 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공급체계 구축, 안전한 식재료 공급으로 영유아·학생·군 장병 등 국민 건강 증진, 이해관계자 참여로 공공급식 투명성 확보 등 ESG 가치를 두루 실현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김재훈 기자

11월 유통업계 매출 16조원

오프라인 매출 4.5% ↑ · 온라인 매출 12.7% ↑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대규모 할인행사 개최 영향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대규모 할인행사가 열린 지난달 유통업계의 매출이 온·오프라인 동시 증가했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1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을 보면 지난달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8.7% 상승한 16조원을 기록했다.

코리아세일페스타, 블랙 프라이데이, 광군제 등 대규모 할인행사가 개최되면서 오프라인 매출은 4.5% 증가했다. 대형마트(1.3%), 백화점(6.8%), 편의점(4.2%), 준대규모점포(4.2%) 등 모든 업체에서 상승했다.

특히 업체별로 다양한 할인·관측 행사를 강화하면서 가전·문화, 해외 유명브랜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서 호조세를 보였다.

점포당 매출은 대형마트(2.4%), 백화점(6.8%), 준대규모점포(0.8%)는 상승했고 편의점(-0.9%)은 점포수 증가에 따른 경쟁 심화로 감소했다.

점포수는 편의점(5.2%), SSM(3.4%)이 늘고 대형마트(-1.1%)는 소폭 감소했다.

온라인 매출은 12.7% 증가했다. 식품(22.0%), 생활·가정(14.1%) 등 전 품목에서 호조세를 보였다.

온라인의 경우 다양한 글로벌 할인 행사 개최, 대용량 절약형 물품 온라인 구매 경향 지속 등으로 전 품목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백화점 3사, 대형마트 3사, 편의점 3사, SSM 4사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 13개사와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 12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뉴시스

'정신건강에 좋은 생화, 직접 키워요'

전북 새농민회, 생화원에 활용 힐링프로그램 진행

(사)한국새농민회 전북도회(회장 이기성)는 26일 농협 전북본부에서 생화원을 활용한 힐링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김영일 전북농협 본부장, 장경민 NH농협손해보험 신입 부사장을 비롯한 도내 새농민회 임원 및 전북농협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화원에활동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강의, 생화를 활용한 꽃바구니 만들기 체험 등의 시간으로 진행했다. 이기성 회장은 "생화는 심리적 안정 효과를 줄 뿐만 아니라 향기는 스트레스 완화 및 각성에 효과가 있다"며 "건강을 위해서라도 일상 속 생화 소비문화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일 본부장은 "생화원에체험 활동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얻고, 집중



(사)한국새농민회 전북도회는 26일 농협 전북본부에서 생화원을 활용한 힐링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력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오늘 받은 좋은 기운으로 내년에는 '더 칭찬받는 전북농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배추 대만 수출 안정화 나서

농진청, 잔류허용기준 초과 문제 농약 5종 관련 대만 정부와 협의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대만으로 배추를 수출할 때 잔류허용기준 초과 문제가 되던 농약 5종에 대해 대만 정부와 협의해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배추의 대만 수출 안정화 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대만으로 배추를 수출할 때 대만의 농약잔류허용기준에 맞지 않아 통관이 거부된 사례가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선 결과다.

농촌진흥청은 국내 배추 재배 시 사용하는 농약에 대해 대만에서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자 작물 잔류시험을 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대만 정부에 통관할 때 문제가 되던 5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요청했다.

지난 3년간의 협의를 거쳐 올해 11월, 국내에서 많이 사용하는 농약 5종(에트렌프록스, 테부페노자이드, 플루페녹수론, 파복사돈, 메복시페노자이드)에 대한 대만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했다.

농촌진흥청은 대만 수출용 배추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이번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5종 농약을 포함한 농약 안전 사용 안내서(가이드)를 제작, 보급하고 상담과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농산물 수출을 지원하고자 2006년부터 대만, 일본 등 수출 대상국과 협의해 국내 사용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왔다. 지금까지 대만과 일본을 대상으로 18개 농산물 79건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설정했다.

농촌진흥청 잔류화학평가과 이희동 과장은 "대만에서 배추 통관 검사 규제 대상이었던 농약 5종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됨에 따라 배추의 대만 수출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농업 현장의 의견을 모으고 수출 대상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수출농산물 농약잔류허용기준을 계속 설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